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까망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까망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까망다

완성된 이름

까망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까망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불빛이 전혀 없는 밤하늘과 같이 밝고 질게 검다. '가망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미상	현재
까망다	-	-	-	-
까망다	-	-	-	-
까매	-	-	-	-
까마후-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불빛이 전혀 없는 밤하늘과 같이 밝고 질게 검다. '가망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22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8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까맣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불빛이 전혀 없는 밤하늘과 같이 밝고 짙게 검다. ‘가맣다’보다 센 느낌을 준다.

☞ 까맣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까맣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까맣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까맣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까맣- 문헌 수록 표기	—	—	—	—	●→	●→
쌔맣- 문헌 수록 표기	—	—	—	—	●→	●→
쌔맣ㅎ- 문헌 수록 표기	—	—	—	—	●→	—
까마ㅎ-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쌔마- 문헌 수록 표기	—	—	—	—	—	●→
쌔맣ㅎ- 문헌 수록 표기	—	—	—	—	—	●→
쌔마- 문헌 수록 표기	—	—	—	—	—	●→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삼악ㅎ- 문헌 수록 표기	—	—	—	—	—	●→
삼마- 문헌 수록 표기	—	—	—	—	—	●→
삼아- 문헌 수록 표기	—	—	—	—	—	●→
삼아항- 문헌 수록 표기	—	—	—	—	—	●→
까마- 문헌 수록 표기	—	—	—	—	—	●→
사매 문헌 수록 표기	—	—	—	—	—	●→
까매 문헌 수록 표기	—	—	—	—	—	●→
까뎡- 문헌 수록 표기	—	—	—	—	—	●→
깎어- 문헌 수록 표기	—	—	—	—	—	●→
까망-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사망다**
19세기
- **까망다**
20세기현재

- 싸매
20세기
- 싸마후-
미상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8종

싸망-, 쌤앙-, 쌤엇ㅎ-, ㅅㅅ마-, 쌤앗ㅎ-, 씹아-, 쌤악ㅎ-, 씹아-, 쌤마-, 쌤아-, 쌤아할-, 까마-, 싸매, 까매, 까멍-, 꺄어-, 까
망-, 싸마후-

ㄴ 까망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ㄷ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까망다’의 옛말인 ‘싸망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ㄴ 말의 구성과 어원

‘싸망다’는 현대어 ‘ 쌤다’로 이어지는 ‘ 쌤-’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싸마’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후-’가 결합한 ‘싸마후-’에서 ‘·’가 줄어든 것이다. 19세기로 추정되는 문헌에서 ‘싸마후-’가 확인된다. 19세기에는 ‘ 쌤앙-’, ‘ 쌤엇ㅎ-’도 나타난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된소리를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은 ‘까망-’이 20세기에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까망-’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까망-’, 모음 어미 앞에서는 ‘까매-’,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는 ‘까마-’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20세기에는 ‘ㅅㅅ마-’, ‘ 쌤앗ㅎ-’, ‘ 씹아-’, ‘ 쌤악ㅎ-’, ‘ 씹아-’, ‘ 쌤마-’, ‘ 쌤아-’, ‘ 쌤아할-’, ‘싸매’, ‘까멍-’, ‘ 꺄어-’ 등 다양한 표기가 나타난다. ‘까멍-’, ‘ 꺄어’는 ‘까망-’의 활용형이다.

📖 문헌 속의 까망다

전체 용례 22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싸망-, 쌤앙-, 쌤엇ㅎ-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싸망-, 쌤앙-, 쌤엇ㅎ-

출처 1895 천로역정 2:142L

용례 01

66 문헌 용례

내가 싸마켓 닛젓노라.

현대어 풀이

그러한 줄은 까망게 몰랐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179

용례 02

66 문헌 용례

쌤아타 [黑].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508

용례 03

66 문헌 용례

쌤엇타 [黑].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쌤마-, 쌤앙-, 쌤앗ㅎ- 외 12종 용례 18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쌤마-, 쌤앙-, 쌤앗ㅎ-, 쌤아-, 쌤악ㅎ-, 쌤아-, 쌤망-, 쌤마-, 쌤아-, 쌤아항-, 까마-, 쌤매, 까매, 까멍-, 쌤어-, 까망-

📖 출처 1900 제국신문 3월 6일 1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ㅅ만 눈썹 붉은 입술 어엿부기 앙글장글 그렸스니.

💡 현대어 풀이

까만 눈썹 붉은 입술 어여쁘기 앙글장글 그렸으니.

📖 출처 1908 빈상설 112

용례 05

66 문헌 용례

이런 일을 삼아케 모르고 계시겠지.

💡 현대어 풀이

이런 일을 까맣게 모르고 계시겠지.

📖 출처 1911 쌍옥적 2

용례 06

66 문헌 용례

압다 바람이 웃지 몹시 부는지 그 편지가 정월 디보름날 익막이 연 모양으로 삼앗케 써나가더니.

💡 현대어 풀이

아따, 바람이 어찌 몹시 부는지 그 편지가 정월 대보름날 액막이 연 모양으로 까맣게 떠나가더니.

📖 출처 1911 모란병 29

용례 07

66 문헌 용례

사이에 든 놈에게 쏘아니 속으신 줄 알았더니.

💡 현대어 풀이

사이에 든 놈에게 까맣게 속으신 줄 알았는데.

출처 1912 구의산 상:55

용례 08

66 문헌 용례

아모조록 집에서처럼 험히 굴너단이며 자지 말고 조심을 밋오 후라 당부나 후얏드면 도흘 것을 삼악케 이져지.

現代어 풀이

아무쪼록 집에서처럼 험히 굴러다니며 자지 말고 조심을 매우 하라 당부나 하였더라면 좋을 것을 까맣게 잊었지.

출처 1912 비행선 34

용례 09

66 문헌 용례

녀주는 기기가 미려후며 머리털은 늙으나 젊으나 단순(單純)이 하얏코 눈스동주는 전테가 십아며.

現代어 풀이

여자는 각각이 미려하며 머리털은 늙으나 젊으나 단순히 하얗고 눈동자는 전체가 까마며.

출처 1912 비행선 54

용례 10

66 문헌 용례

마차 안으로셔 었던 녀주 한아이 하얀 머리를 니밀어 십안 눈스동자로 자귀를 쏘아보는 모양 이.

現代어 풀이

마차 안으로 어떤 여자 하나가 하얀 머리를 내밀어 까만 눈동자로 자귀를 쏘아보는 모양이.

출처 1912 재봉춘 1:73

용례 11

66 문헌 용례

그러헌 줄은 싸마케 몰났습니다.

現代어 풀이

그런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출처 1912 비행선 56

용례 12

66 문헌 용례

그 옆에 머리털은 하얗고 눈은 삼만 녀자 한아이 손에다 룡혈포를 쥐고 썩어나오랴 후느지라.

현대어 풀이

그 옆에 머리털은 하얗고 눈은 까만 여자 하나가 손에다 육혈포를 쥐고 뛰어나오려 하는지라.

출처 1913 우중행인 98

용례 13

66 문헌 용례

그런즉 차옥이는 이 일을 삼안이 모르고 여전히 심회를 무진상하고 잇슬 것이요.

현대어 풀이

그런즉 차옥이는 이 일을 까맣게 모르고 여전히 심회를 무진상하고 있을 것이요.

출처 1927 동아일보 1월 8일 3면

용례 14

66 문헌 용례

싸마코 아득한 것 가트면서도 어디인지 그윽히 숨여드는 맑은 빛이 잇는.

현대어 풀이

까맣고 아득한 것 같으면서도 어디인지 그윽히 스며드는 맑은 빛이 있는.

출처 1932 삼천리 제4권 제9호 82면

용례 15

66 문헌 용례

百度나 되는 五六月 炎天에 살에서 기름땀이 흐르고 皮膚(가죽)이 삼아하케 타서 버서지고.

현대어 풀이

100도나 되는 오뉴월 염천에 살에서 기름땀이 흐르고 피부(가죽)이 까마얇게 타서 벗어지고.

출처 1933 동아일보 9월 13일 6면

용례 16

66 문헌 용례

빛은 까마나 만져도 손이 더럽her지지 않는 것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삼천리 제7권 제1호 281면

용례 17

66 문헌 용례

S는 그 편지를 보고 지난 녀름에 볼 때에 그 동무의 금시에 싸매진 얼굴과 눈물 먹음은 눈과 속
깨물어 담은 입설이 생각났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동아일보 10월 31일 조간 4면

용례 18

66 문헌 용례

"그래 해수욕들은 재미 조왔나? 아주 얼굴들이 제법 까매졌구나"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삼천리 제8권 제8호 282면

용례 19

66 문헌 용례

거진 일 년 갓가이 날마다 되푸리하든 짓을 오늘 아흠에 까떻게 이저버린담.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삼천리문학 제1집 69면

용례 20

66 문헌 용례

양상한 白樺서리 눈인 양 돌도 희고 트이는 감언 虛空에 봉이 새로 솟는다.

현대어 풀이

양상한 백화서리 눈인 양 돌도 희고 트이는 까만 허공에 봉이 새로 솟는다.

66 문헌 용례

까맣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싸마후-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싸마후-

출처 미상 금강별곡 540ㄱ

용례 22

66 문헌 용례

빅 길 되는 놉흔 돌이 구름 밧게 싸마후디 가느다흔 물줄기가 그리로 썩러지니 명쥬(明綱)니라.

현대어 풀이

백 길 되는 높은 돌이 구름 밖에서 까만데, 가느다란 물줄기가 그리로 떨어지니 명주(明綱)이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까맣다 관련 낱말

가맣다, 꺼멓다

까맣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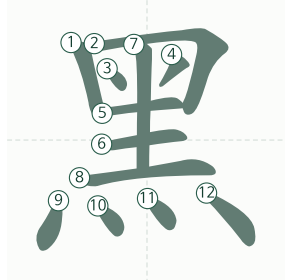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까망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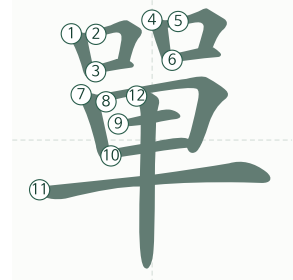
뜻·음 검은 흑
총 12획 · 부수 黑



hanja.wordrow.kr/한자/黑/

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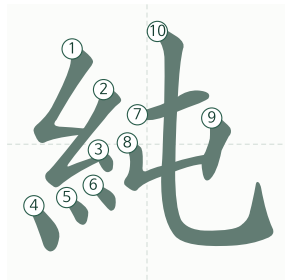
뜻·음 홀 단
총 12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單/

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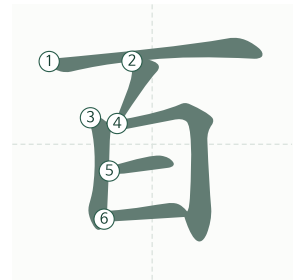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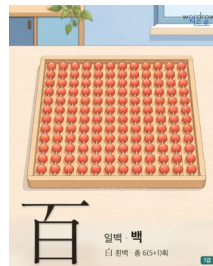
뜻·음 순수할 순
총 10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純/

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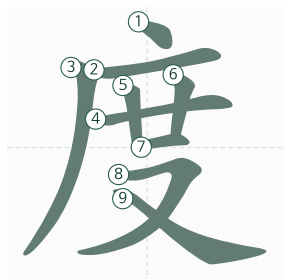
뜻·음 일백 백
총 6획 · 부수 白



hanja.wordrow.kr/한자/百/

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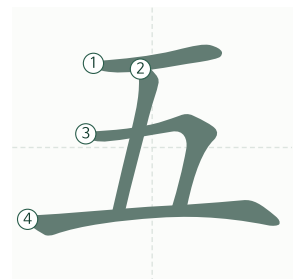
뜻·음 법도 도 / 헤아릴 탁
총 9획 · 부수 广



hanja.wordrow.kr/한자/度/

五

뜻·음 다섯 오
총 4획 · 부수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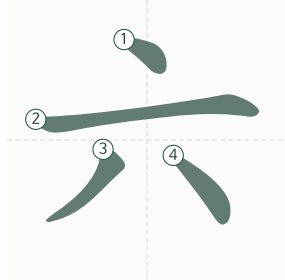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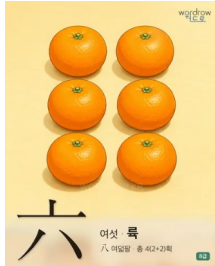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五/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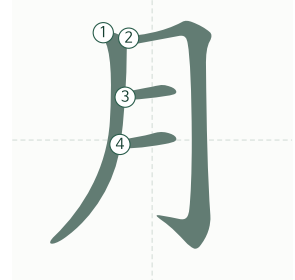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六 뜻·음 여섯 륵
총 4획 · 부수 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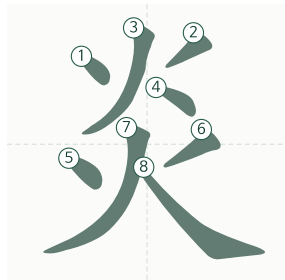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六/

月 뜻·음 달 월
총 4획 · 부수 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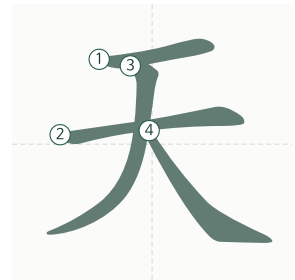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月/

炎 뜻·음 불꽃 염
총 8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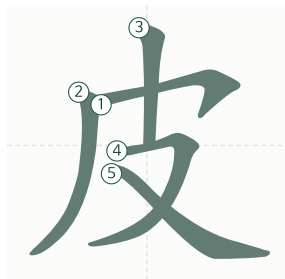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炎/

天 뜻·음 하늘 천
총 4획 · 부수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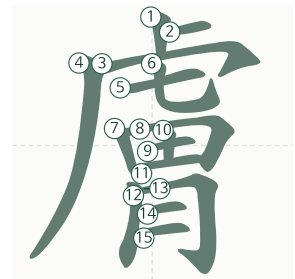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天/

皮 뜻·음 가죽 피
총 5획 · 부수 皮



hanja.wordrow.kr/한자/皮/

膚 뜻·음 살갗 부
총 15획 · 부수 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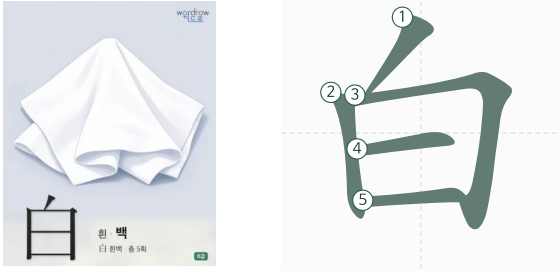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膚/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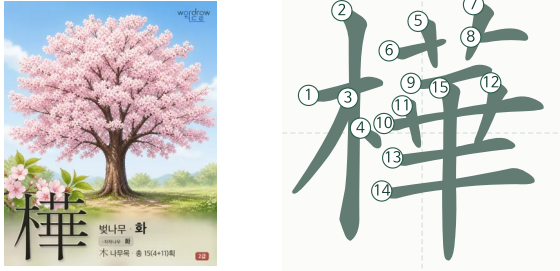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白 뜻·음 흰 백
총 5획 · 부수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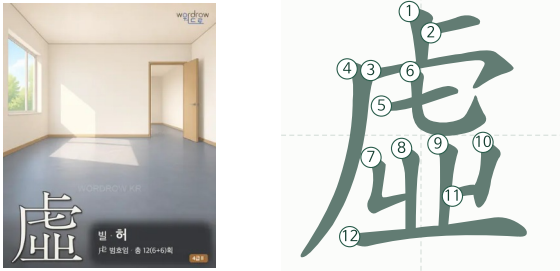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白/

樺 뜻·음 벗나무·자작나무 화
총 15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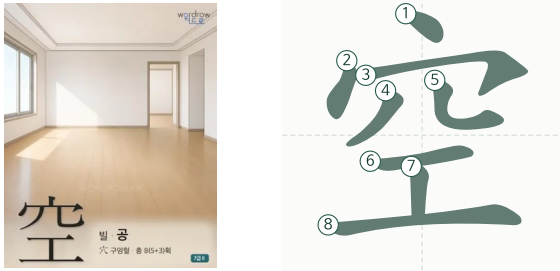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樺/

虛 뜻·음 빌 허
총 12획 · 부수 虍



hanja.wordrow.kr/한자/虛/

空 뜻·음 빌 공
총 8획 · 부수 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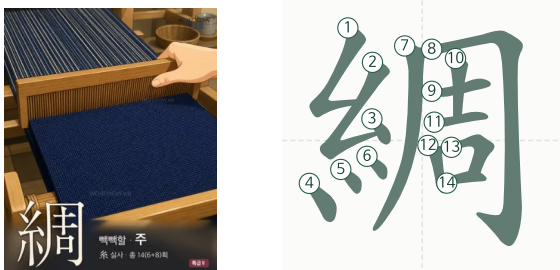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空/

明 뜻·음 밝을 명
총 8획 · 부수 日



hanja.wordrow.kr/한자/明/

網 뜻·음 뽁뽁할 주
총 14획 · 부수 糸



hanja.wordrow.kr/한자/網/